

가을 파종할 수 있는 약초는

가을에 심어야 발아가 잘 되는 것에
는 참당귀, 시호, 방풍, 강활, 고분, 두
충 등이 있고 봄에 심어야 발아가 잘
되는 것에는 황기, 결명자, 더덕, 길경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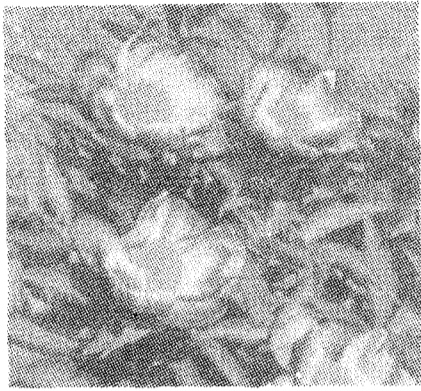
목단이나 작약과 같은 것은 다른 약
초와 달리 가을에 뿌리를 잘 내리므로
9월 중순~10월 초순에 심어야 잘 산
다. 봄에 심으면 지상부의 생육만 무성
하게 되고 뿌리의 발달이 잘 되지 않으
므로 말라 죽거나 살아도 생육이 극히
불량하게 된다.

가을에 파종할 수 있는 약초 몇가지
를 중심으로 파종방법과 관리법에 대
해 알아본다.

강 활

강활은 채종한 직후에 바로 파종하
거나 늦가을인 10월 하순~11월 초순
에 파종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파종이
어려우면 이른 봄, 즉 3월 하순~4월
초순에 파종한다.

파종방법 묘상파종은 흠어뿌림
이나 줄뿌림으로 하는데, 줄
뿌림 보다 흠어뿌림으로 하는 것이
묘간간격에 고르고 좋다. 흠어뿌림은
상면에 고르게 종자를 뿌린후 부엽토
를 체로 쳐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은 다음 짚을 깔아주고 충분한 양의
물을 준다. 강활은 특히 출현력이 약하
여 덮은 흠이 단단하거나 두꺼우면 땅
속에서 발아된 후에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썩어버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작 약

8월 하순 작약의 꼬투리가 누렇게
익어 벌어질 때 꽃대를 잘라 꼬투리속
의 종자를 빼낸다.

파종방법 10cm간격으로 3cm깊이
의 골을 치고, 골에 5cm
간격으로 종자를 넣고 흠으로 덮어 준
다.

정식방법 나비 60cm의 두둑 에
는 두둑위에 포기사이를
40cm로 하고, 120cm의 두둑에는 줄사
이를 60cm, 포기사이를 40cm로 하여
심는다. 정식방법은 구덩이를 파고 짝
눈이 위로 향하도록 놓고 흠으로 매꾸
면서 깊이를 조정하여 짝눈 위로 흠이
2cm 정도 덮이도록 하고 가볍게 눌러
준다.

시 호

종자의 충실도는 1년생 보다 2~3
년생에서 채취한 것이 높고 충실한 종

자를 파종해야 발아율이 높으며 생육
도 양호하다. 따라서 생육이 양호한 2
년생 포기를 선택하여 채종하도록 한
다. 파종은 늦가을(11월 초순~11월
하순)이나 이른봄(3월 중·하순)에 가능
하지만, 늦가을에 파종하는 것이 발아
율이 높다.

파종방법 비중 1.03의 소금물(벼
종자를 염수선택할 때의 농
도와 같음)을 만들어 범씨와 같은 요령
으로 염수선택하여 가라앉은 종자를 물
에 씻어 음건하여 파종용 종자로 이용
한다. 또한 5℃ 정도에서 2일 정도 저
온처리한 후 파종하기도 한다. 10a당
1kg의 종자가 소요된다.

파종은 나비 90cm의 두둑을 만들고
포기사이를 20cm로 하여 깊이 1cm 정도

두 충

두충나무는 추위에 어느정도 견디므
로 우리나라의 고냉지와 준고냉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재식방법 묘목은 적어도 40cm이
상 자란 충실한 것을 심
는 것이 좋다. 재식할 때에는 10a당
300~500주로 밀식하며, 아랫가지를
없애고 원줄기가 잘 성장하도록 해주
어 지하고(지면으로부터 가지가 짧은
부위까지의 높이)를 높여 주어야 양질
의 생약재를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며,
재식 6~7년 후 간벌에 의한 중간수입
도 기대할 수 있다.

판로여건고려후작목선택바람직

약용작물은 그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
므로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재배면적이 감소하면
품귀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출전망, 국내수요, 수확까지
의 소요기간, 종자및 종묘구입, 지역여
건, 판로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작목
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가격(수익성)이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국내 수요가 거의 없고 수출도
적은 품목은 조금만 생산되어도 가격이
하락하므로 가능한 한 재배를 피하고, 가
격이 좀 낮더라도 국내 수요가 많고 수출
도 많이 되는 것을 택하여 안정을 도모해
야 한다. 바람직한 것은 가격변동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주산단지화하여 공동생산,
규격별 포장화 및 공동 판매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자나 종묘의 구입은 생약종묘회사나
공동조합 등으로 부터 구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약용작물 중에는 종묘의 구입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와같은 것은
생산자 자신이 소량 생산으로 부터 시작
하여 재배법을 확립시키고 서서히 종묘
수를 늘려 종묘를 자가생산해 나아갈 필
요가 있다. 또 그것에 의하여 더 경제적
인 생약생산이 가능하게도 된다.

〈가을파종약재 국내수요량 및 시세〉

품목	수출량 (96)	국내소비량 (96)	생산량 (96)	(단위 M/T)	
				시세 (600g 기준)	
강 활	-	200	200	5,500	
두 충	-	500	2,680	6,500	
작 약	15	2,500	3,877	4,500	
시 호	34	300	258	14,000	

※ 생약협회 통계자료. (시세는 97년 10월 기준 도매시세임)

햇것 출하가 본격 시작되면서, 시세폭락으로 재배를
기피했던 품목인 맥문동, 향부자, 작약등의 약재는 면적
감소와 함께 생산량도 대폭 줄어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
이고 있는 반면 당귀 강활 백지 방풍 등은 이달 중·하순
경 햇것 출하시기를 앞두고 다소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풍작을 거둔 당귀는 지난 재고량에다 햇것 물
량이 증가하면서 근당 3천원 선까지는 더 추락할 것이
란 분석이다.

특히 개량종의 보급으로 평당 수확량이 증가한 백하수
오는 올들어 햇것 물량이 대량 쏟아져 나오면서 시세도
근당 5,6천원씩이나 큰 폭으로 곤두박질쳤다.

당귀 지난달 근당(6백g 기준) 4천7백원선이던
토당귀 시세가
근당 4천원 선(통)으로 근
당 6천원에 거래되던 절당
귀가 근당 4천5백원 선으
로 값이 떨어졌다. 이처럼
당귀값이 계속해서 큰폭으로 떨어지는 원인은 올 당귀농
사 작황이 풍작으로 생산량이 대폭 증가한데다 지난 재
고량까지 가세한 때문이다.

이달 중·하순경부터 본격 햇것이 출하돼 나오기 시작
하면 근당 3천원 선까지는 토당귀 값이 더 떨어질 것이
라는 분석이다.

하수오 국내 농가에 대량 보급돼 재배되고 있는 개
량종 하수오는 평당 수확량이 2~3근(건조)
으로 평당 1근 수확이 고작인 토종에 비해 무려 2,3배

의 높은 생산성을 올릴수 있는 다수확 품종.

개량종 하수오 수확량이 올해부터 본격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수오 시세가 가파른 내리막길로 치달고 있
다. 지난달 근당(6백g 기준) 5천~6천원 선에 도매거래
되던 한수오가 이달 들어 근당 2천~3천원 선이 고작이
다. 뿌리가 볼펜 크기 만큼 가는 물건들은 1천5백원 까
지도 거래되고 있는 실정.

시 세 동 향

맥문동 값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세 풍작당귀 근당 3천원까지 추락 할 듯

하수오는 평당 수확량도 많을 뿐 아니라 일일이 세척
수작업으로 껍질을 벗겨 가공해야 하는 산약과는 달리
기계로 한번 돌려내 거피한 후 건조 절단 하는, 비교적
일손이 덜가고 가공과정도 손쉬워 예전에 산약을 재배하
던 농가들이 너도나도 하수 오재배로 전환하고 있는 추
세다. 이처럼 과잉재배 생산되고 있는 하수오는 당분간
폭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두충 수확작업이 이미 마무리된 두충시세는 약
간의 오름세다. 현재 거래시세는 근당(6백g

기준) 6천~6천5백원으로 지난달 5천~5천5백원 보다
5백원 가량 올랐다. 당분간 보합세 이를 전망.

맥문동 맥문동 시세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계속 상
승세를 타고 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심
맥문동(청양산) 근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1만6천5백
원 선, 막맥은 1만4천원 선으로 지난달 시세 1만4천5백
원(거심), 1만2천원(막맥)보다 각각 2천원 폭으로 경중
올랐다.

밀양산은 청양산 보다 1천원 더 비싼 근당(6백g 기준) 1
만7천원 선에 산지 도매거래 되고 있다.

작약 폭락시세가 좀처럼 반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부터 재배면적도 급
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작약값 바닥세는 면적감소뿐
아니라 관리소홀로 이어져 평
당수확량 감소는 물론 말이 덜
들어 뿌리가 실하지 못한 상
황.

햇것 물량은 대폭 줄었지만 지난 재고량이 아직 많아
시세는 당분간 보합세 이를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조만
간의 작약값 상승세를 점치기도 하지만 경기불황의 여파
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에서 거래되고 있는 작약시세는 호남산이 근당(6
백g 기준) 2천7,8백원 선, 의성산이 3천5백~4천원 선
이다.